

니체 『도덕의 계보』 독후감

20170780 조용주

본 강의의 과제인 독후감 작성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다양한 텍스트는 6개로 종류가 적지 않다. 본인은 그 중 강의에서 배운 학자의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독후감 내용의 풍족함이나 시험 공부를 위한 학자 이해도 고양의 측면에서 이로우리라 생각해 프로이트의 저서와 니체의 저서를 두고 고민하였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저서에 대한 독후감을 쓰게 되었는데, 이는 프로이트 이론을 공부하며 느낀 미소지니적, 귀어 혐오적 불쾌감으로 프로이트에 대한 반박(아마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같은 참담한 행위로 보여질)이 독후감 전체를 이루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읽고 난 뒤 본인은 차라리 프로이트의 저서를 읽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프로이트에게서 일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혹은 무지)가 느껴졌다면 니체는 사회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반동적 움직임 자체를 부정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덕에 대한 니체의 견해

니체는 귀족(혹은 기사)의 도덕과 천민(혹은 성직자, 노예, 무리)의 도덕을 좋음과 나쁨,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귀족적 도덕인 좋음과 나쁨은 말 그대로 선호적 의미이다. 특정 행위가 '좋은 행위'인 이유는 본인(주체)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인 판단이 이들의 도덕을 구성한다. 반면, 천민적 도덕인 선과 악은 주체적 판단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이를 악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에의 반작용으로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측면에서 귀족적 도덕을 따라야 할 도덕 방식으로 보았다. 그는 이에 따라 천민의 도덕에 기반한 수동적이고 무욕적인, 비의지적 삶에서 벗어나 행위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위의 동기가 원한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말 그대로 '귀족적'인 니체의 도덕

니체가 지향하는 도덕은 매우 귀족적이다. 니체는 이때의 '귀족'이 계급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귀족적 도덕을 계급적 의미의 귀족과 떼어놓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귀족적 도덕의 실행 자체가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시로 개인이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의 가정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만해 결국 진학을 포기하였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옳은 선택을 하려 했으나, 경제 상황을 비롯한 주변 환경으로 선택의 실현이 좌절된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주체적 선호에 따른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 개인의 귀족적 도덕의 실현 여부는 달라지고, 이는 결국 귀족적 도덕에서의 귀족을 계급적 의미로 전환시킨다.

약자들이 귀족적 도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약자들이 귀족적 도덕을 실행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약이야 존재

하겠으나, 현실에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바뀌어나가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니체는 기득권층에 대한 원한을 가지면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결국 허무에 대한 집착과 원한을 낳으니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본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불만을 모두 개인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덕 실행 과정이 매우 신자유주의적으로 느껴졌다.

분명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자연재해가 그 대표적 예시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가해자가 너무도 명확한 사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우리는 눈 앞에 존재하는 가해자에 대해 증오나 원한의 감정을 갖기보다 객관적인 현실 변화를 위해서 개인 스스로 힘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원한을 지닌 채 특정한 행위를 이어나간다면 이는 천민적 도덕의 실천이 되는가?

니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운동

니체가 여성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던 것과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니체가 사회운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추측 가능하다. 그의 도덕관은 결국 뛰어난 개인들과 멍청한 무리를 구분지음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사회운동은 멍청한 무리의 원한 분출이자 평등이라는 과도한 권리요구, 즉 천민적 도덕의 실현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직접적 예시를 몇가지 들어보자. 먼저 페미니즘이다. 니체가 '여성은 소유의 대상이자 감정적 동물'이라는 혐오적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니체는 현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본인은 역시 비판적으로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운동은 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기저에 대해 남성 및 남성 문화 자체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후 페미니즘은 '미러링 전략' 등 원한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여성 배우, 작가 등의 공인에 대한 집단적 지지를 보내는 등 연대 감정에 기반한 활동을 이어갔다. 니체는 이러한 운동 양상에 대해 원한의 대상에 대한 복수에 기반한 행위라는 점, 감정에 휩쓸려 개인들이 무리를 이뤄 타인의 도덕 잣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이라는 점을 들어 천민적 도덕 실현의 과정이라 해석할 것이다. 또한 무리 전체의 평등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니체의 입장에서 원한 감정에 기반하지 않고, 무리의 연쇄적 도덕 모방이 소거된 여성 인권 향상 방법은 무엇일까. 니체는 아마도 여성 전체가 아닌 여성 개인이 마주한 차별의 벽을 개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뚫어낼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취업에서의 차별은 업무 능력의 향상으로, 빈번한 물리적 폭력에의 위협은 신체적 기능 향상으로 해결하는 등의 방안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는 여성 전체의 해방이 아니다. 이는 소수의 뛰어난 여성들만을 위한 임시

적 방편일 뿐이다. 결국 니체의 방법으로는 여성 차별 소거라는 사회운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다른 사회운동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원한 대상이 명확한 노조 운동부터 비교적 원한의 대상이 모호한 동물권 운동까지도 니체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리라는 것이다. 노조 운동의 경우 페미니즘 운동의 경우와 비슷하게 원한 감정과 무리적 평등 요구에 대한 비난을, 동물권 운동의 경우 가해자(인간)의 행위가 좋음에 기반한 행위임을 강조해 도덕적 무결성을 주장할 것이다.

모두가 맹금일 수는 없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맹금과 양을 예로 들어 천민적 도덕을 설명한다. 맹금은 양을 사냥하고, 양은 자신을 공격한 맹금을 가해자이자 악으로 규정한다. 이는 자연히 양을 선으로 만들고, 맹금에 대한 원한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니체는 맹금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음, 즉 귀족적 도덕을 통한 판단에 기반해 행동했을 뿐임을 말하며 양의 선악 구분을 약자의 천민적 도덕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논리는 기득권의 횡포를 정당화할 뿐이다. 누군가는 맹금과 같은 단단한 부리를 지니지 못했고, 누군가는 맹금과 같은 재빠른 날개를 지니지 못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맹금의 공격을 막을 만한 어떠한 방법조차 지니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맹금이 강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행위들을 행하는 것은 옳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등으로의 진보이다. 이 방향성이 불투명한 기원을 지닌 보편적 도덕과 비주체적 이성, 무리적 집단 감정에 기반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맹금이 양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 모두가 맹금일 수는 없다.